

2018. 12.
Vol.4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¹⁾

최정원 부연구위원

개요

조사목적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파악 및 재범 방지 대책 모색을 위해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범 집단을 대상으로 범죄 및 처벌 전력, 가정환경, 시설 내 생활 실태, 재범에 대한 태도 등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조사하였음.

조사대상 ▶ 서울소년원 재원 보호소년 150명, 김천소년교도소 재소 소년수형자 82명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

조사기간 ▶ 2018년 8월 2일, 3일

1) 본 블루노트 통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도 연구과제인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으로 보고서 발간 이전에 본 통계를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것을 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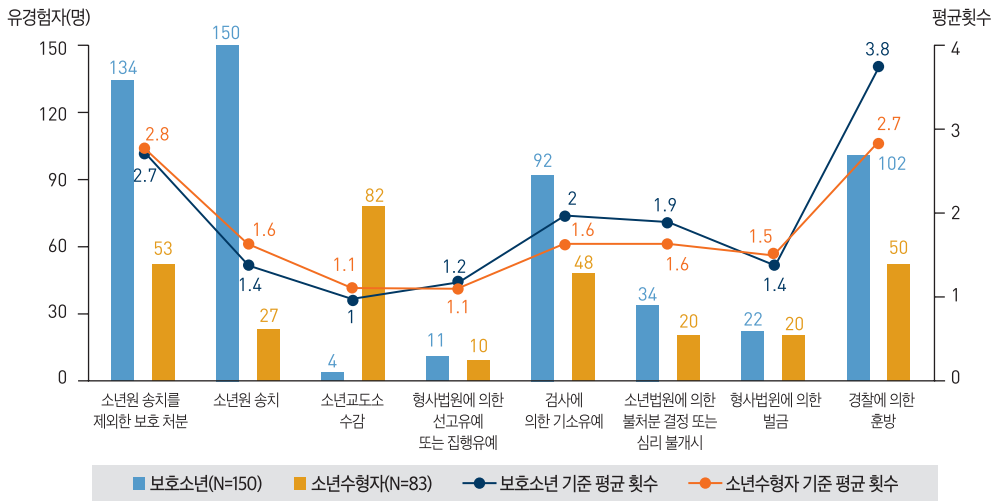
1 소년범의 처분 및 처벌 전력

■ 소년범들이 가장 빈번하게 경험해 본 처분 및 처벌 내역은 경찰에 의한 훈방임(평균횟수 기준)

- 보호소년 응답자의 68%는 평균 3.8회, 소년수형자 응답자의 61%는 평균 2.7회 정도 경찰에 의한 훈방 조치를 경험해 보았음.

■ 가장 많은 소년범들이 경험해 본 처분 및 처벌은 소년원 송치를 제외한 보호처분(유경험자 비율 기준)

- 보호소년 응답자의 89.3%는 평균 2.7회, 소년수형자 응답자의 64.6%는 평균 2.8회 정도 소년원 송치를 제외한 보호처분을 받아 본 적이 있음.
- 보호소년 응답자의 소년원 송치 경험 비율이 100%인 것은 현재의 송치 처분을 포함했기 때문임. 마찬가지로 소년수형자 응답자의 소년교도소 수감 경험 비율이 100%인 이유도 현재의 수감 처벌을 포함했기 때문.



※ 본 자료는 응답자들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들의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실제 처분 및 처벌 전력과 상이할 수 있음.

그림 1 소년범의 처분 및 처벌 전력

2 소년범의 범죄 실태(최종 범죄와 직전 범죄 비교)

- 소년범들이 지금의 처분(처벌)을 받게 된 범죄사건(최종 범죄)과 직전에 받았던 처분(처벌)과 연관된 범죄사건(직전 범죄)을 조사한 결과 232명의 소년범 응답자 중 213명이 직전 범죄로 인한

처분(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확인됨.

– 나머지 19명은 모두 초범자로 이중 5명은 소년원의 보호소년, 14명은 소년교도소의 소년수형자로 구분됨.

■ 아래 표는 213명의 소년재범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최종 범죄와 직전 범죄의 유형을 교차 분석한 결과로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동종 유형,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종 유형을 나타냄.

- 동종 유형의 누적 빈도는 101명, 이종 유형의 누적 빈도는 112명으로 소년재범자의 47.4%가 최종 범죄 및 직전 범죄에서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음.
- 범죄 유형 가운데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의 점유율이 가장 높음.

표 1 소년재범자의 직전 범죄와 최종 범죄 사이의 유형 비교

		직전 범죄										
		재산 범죄	강력 범죄 (폭력)	강력 범죄 (흉악)	약물 남용 (유해화학, 마약류 포함)	교통 관련 범죄	기타 형법 범죄	성매매 알선	위조 범죄	풍속 범죄	기타	합계
최종 범죄	재산범죄	44	7	3	1	7	0	0	0	1	1	64
	강력범죄 (폭력)	12	28	1	1	1	0	0	0	0	0	43
	강력범죄 (흉악)	20	20	10	0	4	0	0	0	0	1	55
	교통관련 범죄	0	5	0	1	7	0	0	1	0	0	14
	성매매 알 선	1	1	0	0	1	0	2	0	0	0	5
	기타	6	9	0	0	6	1	0	0	0	10	32
	합계	83	70	14	3	26	1	2	1	1	12	213

※ 범죄 유형 상세 설명 – 재산범죄: 절도(특수절도 포함), 사기·횡령, 기물파손 / 강력범죄(폭력): 폭력(폭행, 상해 포함), 협박
 강력범죄(흉악): 강도(특수강도 포함), 강간(특수강간, 성폭력 포함), 방화, 살인미수
 기타형법범죄: 공무집행방해 / 위조범죄: 공문서위조 / 풍속범죄: 도박 / 기타: 보호관찰 위반

■ 소년재범자 집단이 직전 범죄로 받은 처분 및 처벌 가운데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전체 보호처분의 점유율이 보호소년의 경우 89.6%, 소년수형자의 경우 52.9%에 달함. 보호처분의 비중이 다른 처분 및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현행 보호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소년원 송치를 직전 범죄로 인해 경험했지만 재범으로 소년원에 재 송치된 보호소년은 총 56명으로 38.6%에 달함. 소년수형자 중 직전에 소년원에 송치됐다 재범으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경우는 25%에 달함.

- 직전 처벌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 재범으로 소년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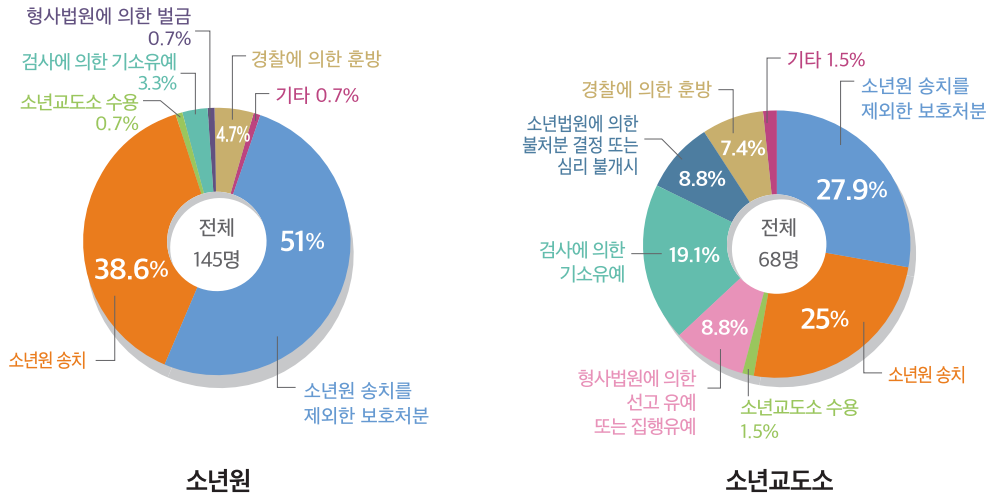


그림 3 소년재범자의 직전 처분 및 처벌

- 이러한 결과는 일견 보호처분의 재범 억제 실효성에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지만 직전 처분 및 처벌에 따른 소년재범자의 재범 기간²⁾을 통계적으로 비교³⁾했을 때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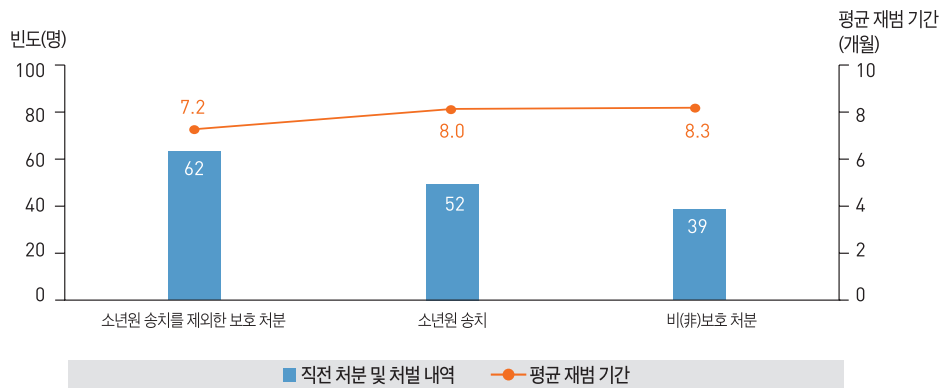


그림 4 직전 처분 및 처벌에 따른 평균 재범 기간 집단 비교

- 소년범의 연령, 직전 및 최종 범죄의 유형을 추가로 통제한 경우에도 평균 재범 기간의 유의한 집단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2) 여기서 재범 기간이란 '직전 범죄로 인한 처분 및 처벌이 종료된 시점부터 현재의 시설에 수용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함.
 3) 집단 비교는 재범 기간 산정에 유효 정보를 제공한 15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3 현 수용 시설에서의 생활 적응 실태

- 소년범 응답자의 과반수는 현(現) 시설 내 생활이 자신의 인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함.
 - 보호소년 응답자의 76%, 소년수형자 응답자의 69.5%는 현 시설에서의 생활이 자신의 인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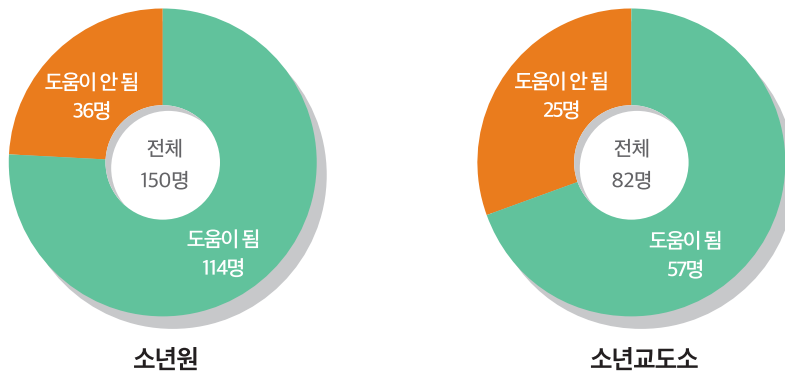


그림 5 현 시설 내 생활의 인성 개선 기여 여부에 대한 소년범의 생각

- 그러나 현(現) 처분(처벌)의 형평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소년범 또한 상당수 존재함. 보호소년 응답자의 41.3%, 소년수형자 응답자의 29.3%는 자신이 받고 있는 지금의 처분(처벌)이 잘못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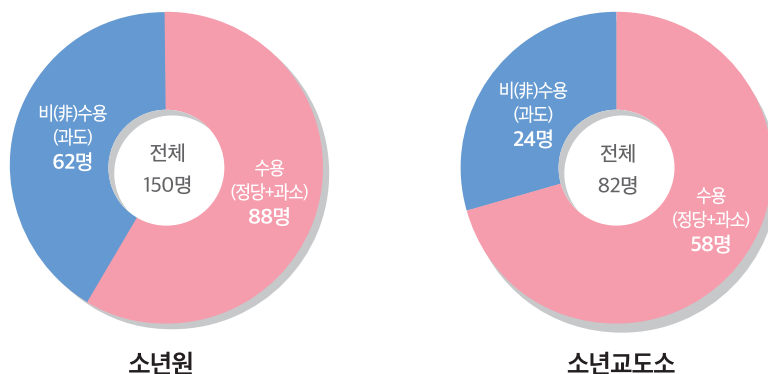


그림 6 현(現) 처분 및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소년범의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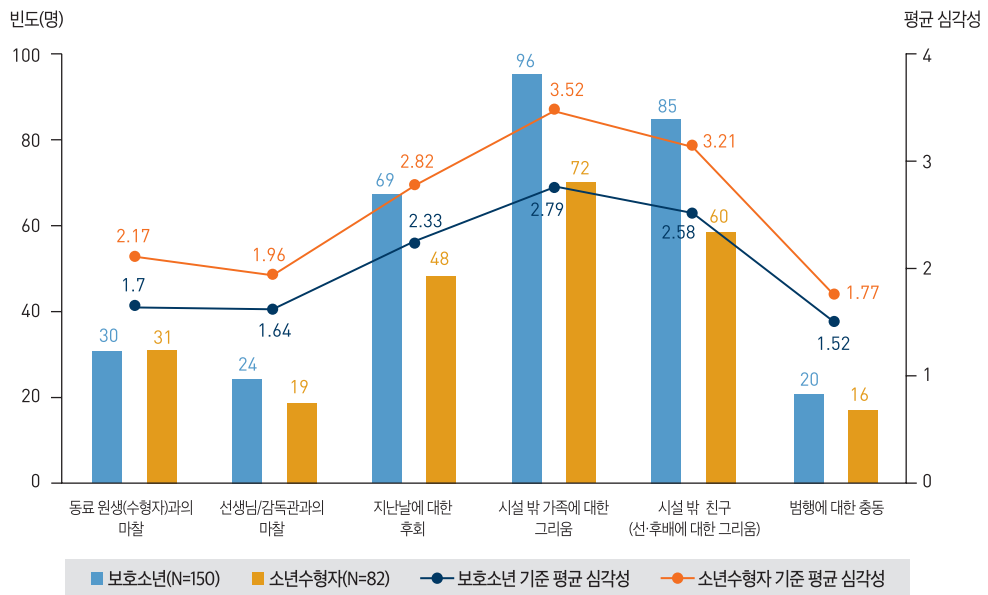
-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처벌)의 형평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소년범일수록 시설 내 생활을 통한 인성 개선을 체감하지 못할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러한 개연성이 보호소년

집단에서 확인됨.

- 보호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소년원 송치 처분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과 시설 내 생활에 따른 인성 개선 여부에 대한 인식을 교차 분석한 결과 송치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지하는 보호소년일수록 지금의 생활이 인성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오즈(odds)가 송치 처분의 형평성을 인정하는 보호소년이 지금의 생활이 자신이 인성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오즈(odds)의 2.143배에 달함.

■ 두 시설의 소년범이 제기하는 시설 내 생활의 애로 사항 중 공통으로 부각되는 문제점은 시설 밖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그리움임.

-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와 같은 시설은 비단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소년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소년원에 비해 더 엄격한 통제와 감독이 강제되는 소년교도소의 소년수형자가 보호소년에 비해 더 심각한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음.



- ※ 1. 문항 평가는 4점 척도(1=전혀 어려움 없음, 2=별로 어려움 없음, 3=약간 어려움, 4=매우 어려움)를 이용함.
 2. 빈도는 4점 척도 중 3, 4번을 선택한 응답자 기준임.
 3. 평균 심각성은 시설 별 응답자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값임.

그림 7 시설 내 생활의 애로 사항 및 심각성

4 시설 출원(소) 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태도

■ 소년범 응답자의 과반수는 자신이 현(現) 시설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음.

－ 보호소년 응답자의 94%, 소년수형자 응답자의 93.9%가 출원(소) 후 자신의 재범 가능성을 부정함.



그림 8 출원(소) 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년범의 태도

■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년범의 태도는 출원(소) 후 계획 수립 여부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재범 가능성에 대한 태도와 출원(소) 후 자신이 하고픈 일을 계획했는지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출소 후 하고픈 일을 계획한 소년범일수록 그렇지 않은 소년범에 비해 자신의 재범 가능성을 부정할 오즈가 5.089배 높았음.

－ 실제로 설문조사를 통해 소년재범자 집단이 재범 기간에 주로 한 활동을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재범자 집단일수록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던 재범자 집단에 비해 재범에 이르는 평균 시간이 유의하게 길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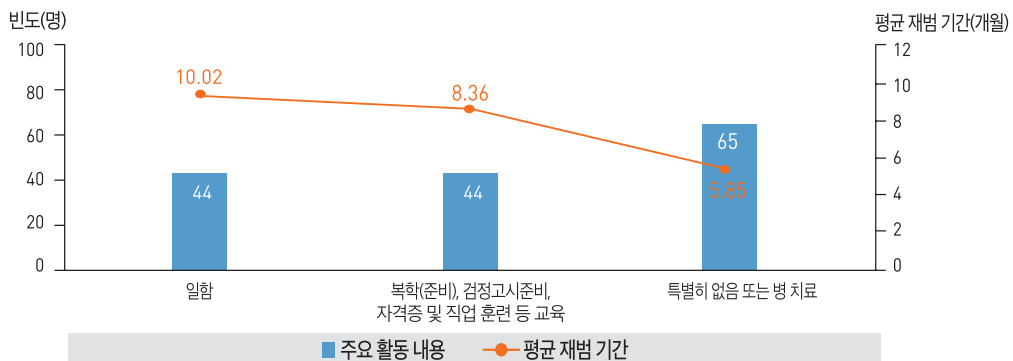


그림 9 재범 기간 활동 내용에 따른 소년재범자 집단의 평균 재범 기간 비교

- 이러한 결과는 소년재범자 집단의 최종 범죄 및 직전 범죄의 유형, 이로 인해 재범자 집단이 받았던 처분 및 처벌의 유형을 추가로 통제한 후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함.
- 소년범이 사회에서 종사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영역이 다양해지고 안정적으로 지속될수록 이들의 재범 위험성은 줄어들음.

5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

■ 출원(소) 후 자신의 재범 방지를 위해 소년범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선택한 조건 중 ‘비행친구와의 교우 단절’과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소년이 예전의 비행친구들과 재회하지 못하도록 소년범의 일상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개입 및 관리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소년범의 취업 알선과 취업 후 사후관리가 병행된다면 소년의 재범 위기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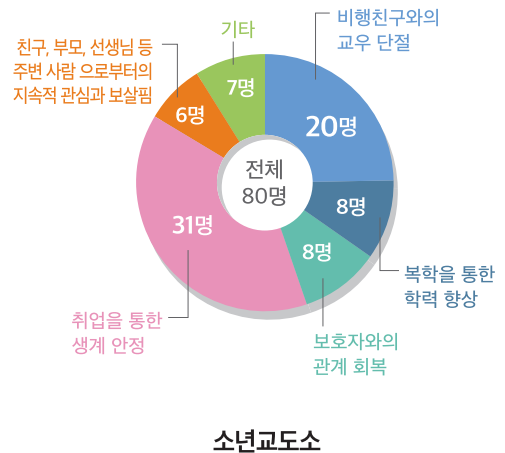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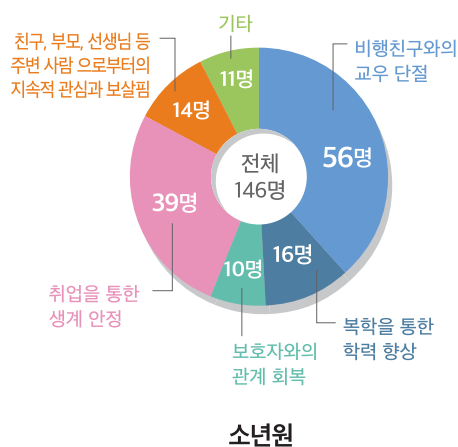


그림 10 출원(소) 후 자신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